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코로나 일자리 창출 대안 주목

사회공헌활동에 참여소득... 기본소득 보완 신개념 모델 일자리 사각 해소... 지역 선순환 효과로 '전국화' 관심

광주 광산구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광산시민수당'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에 활력까지 불어 넣는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써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시민수당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소득을 위한 노동'에서 '참여를 위한 노동'으로 일자리 관점을 전환, 시민들의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 소득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보다 완화된 개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상당한 규모의 자원 확보라는 크나 큰 과제를 풀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의 한계를 해소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광산시민수당이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3개 사업에 731명이 참여, 총 15억8800만원의 광산시민수당이 지원됐다.

실직 위기에 놓인 시민들은 일자리와 생계비를 얻고, 광산구는 마스크 제작, 방역단 운영, 청년 일 경험 지원, 자원재활용 코디네이터, 친수환경정비단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문화·예술인들 역시 광산시민수당과 연계한 공연소득, 수당 등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이는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경력단절 여성, 퇴직한 중·장년층과 같이 자격과

경력이 있음에도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 일자리 참여할 수 없던 이들의 참여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광산시민수당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과 취업유지수당 지원 등 민간분야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자치구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광주 5개 구청장 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광주지역 간담회'에선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제안한 광산시민수당과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전국화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광산시민수당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일명 '광산시민수당 시즌2'다.

올해는 ▲면역력 증진 ▲기후대응 ▲돌봄 공백 해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사업을 발굴, 319명을 지원한다. 자원봉사 영역 또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사회서비스를 시민들의 재능과



광산시민수당 사업에 참여한 광산주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광산시민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역량을 활용해 충족하고, 참여소득을 지급해 시민 생활 안정과 필수 사회서비스의 지속성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

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직면한 일자리 위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확산한다. 공동체 노동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전국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비아농협,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농배수로 정비 호응

우기철 자연재해 대비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비아농협이 최근 신창동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농배수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비아농협이 우기철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해 관내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농·배수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일 광주비아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관내 농·배수로가 무너지거나 침전물이 쌓여 막히는 등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해 영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광주비아농협은 매년 집중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관내 신창동과 산월동 등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의 농·배수로를 지난 5월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수년간 농·배수로에 쌓인 침전물을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하고 무너진 농·배수로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관련 영농기반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농·배수로 정비를 통해 우기철이면 배수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농경지 및 시설하우스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비아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 정비사업 구간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매년 우기철이면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박홍식 조합장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

사할 수 있는 영농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2021 예술여행학교' 수강생 모집

광주시는 "이달부터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1 예술여행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예술여행 시민주도과정'과 '예술여행 기획자 양성과정'으로 나뉘어 11월까지

지 기초교육, 심화교육, 맞춤형 멘토링, 해커톤 등을 실시한다. 총 수강인원은 100명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참가비도 지급한다.

교육 참가신청은 18일 밤 12시까지며,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25일 10년후그라운드(광주 남구 양촌길1)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예술여행학교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art_tour_school@naver.com)로 지원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삼호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합산점수가 70점을 넘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4대 방침 10개 분야 59개 공약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16개, 이행 후 계속 추진하는 공약은 30개로 78% 이행률을 달성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97.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2년 연속 좋은 결과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남은 임기 기간에도 공약 이행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삼호 광산구청장, 1% 희망대출 전국화 행보

지역사회 혁신 회의서 우수정책 발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에서 1% 희망대출을 지방행정혁신 우수 모델로 공유하는 등 전국 확산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시·도 기초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지방행정혁신의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풀뿌리금융 무담보 1% 희망대출'을 지역사회혁신 우수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1% 희망대출의 타지역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주관의 시범 공모사업을 제안한다"며

"참여지자체를 공모해 국비를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희망대출은 지난해 광산구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광산경제백신회의'가 내놓은 경제백신 처방이다. 광산구 지역 5개 상호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구민의 자발적 펀딩으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1% 이자의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3차례의 1% 희망대출을 추진했고, 올해 4차 희망대출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총 650여 명(1인당 최대 1000만 원)에게 무담보로 47억 원에 달하는 위기 극복 자금이 지원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